# 제 4절 문화예술

- I. 문화예술 행정
- Ⅱ. 관광문화재 행정
- Ⅲ. 광고물관리

# Ⅰ. 문화예술 행정

## 1. 문화예술 진흥

우리 구는 사적 제215호인 국내 최장의 금정산성과 천년 고찰 범어사 등 많 은 문화재를 보유한 유서 깊은 고장이자, 금정도서관·금정문화회관·금정체육 공원 등이 있어 전통과 현대를 넘나들며 문화를 만끽할 수 있는 웰빙 도시이며.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외에도 예술관련 중 · 고등학교가 소재하여 문화예술 발전의 기반을 두루 갖추고 인재 양성에 심혈을 기울이는 한편. 금정예술제를 통하여 구민이 직접 참여하는 문화예술축제를 정착 발전시켜 지역문화 예술진흥에 기 여하였으며 부산대 명물거리에서 "젊음의 문화거리"를 조성 정기적인 문화공연 을 개최하여 청소년들의 문화활동 참여를 유도하는 등 명실상부한 역사·문 화 · 관광 · 교육의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 〈문화공간현황〉

계	문 화 회 관	박물관	도서관	기념관	영 항 상영관	문 예 · 기념비	동 상	김정한 생 가
19	1	2	2	1	2	8	1	1

### 〈문화회관현황〉

명 칭	소 재 지	좌 석 수	관 리 자	
금정문화회관	금정구 구서1동 481	대 공 연 장 874석	금정구청	
ㅁ엉ፒ외원		소공연장 330석	дото	

### 〈박물관현황〉

머 취	۸ ال ال		규 모	
명 칭	소 재 지	면 적	소 장 품	관 리 자
부산대학교 박물관	금정구 장전2동 산30	575평	유물 21,235점	부산대학교
범어사 성보박물관	금정구 청룡동 546	152평	22종 283점	범 어 사

# 〈도 서 관 현황〉

<del></del> 명 칭	소 재 지		규 모	관 리 자	
70 60	그 세 시	면 적	소 장 품	한 다 자	
서 동 도 서 관	금정구 서1동 150-73	143평	도서 64,694권	부산시교육청	
금 정 도 서 관	금정구 청룡동 산30	2,513평	도서 67,002권	금 정 구 청	

## 〈기념관현황〉

 명 칭	소 재 지		규 모	관 리 자	
5 8	고 제 시	면 적	소 장 품	선 니 사	
한국순교자 기 념 관	금정구 부곡3동 1-4	327평	유물 등 3,000여점	천주교 부산교구 유지재단	

# 〈영화상영관 현황〉

명 칭	소 재 지	좌 석 수	관 리 자
O <sub>2</sub> 시네마	금정구 부곡2동 298-2	총 1,104석	김 건 백
메가라인부산대	금정구 장전동 292-4	총 1,186석	한 성 호

# 〈문 예·기 념 비 현 황〉

명 칭	소 재 지	설립일자	관 리 자
요산 김정한 문학비	범어로 하행선 문화의거리(청룡동 산 2-1)	'94. 4. 26	금정구청장
향파 이주홍 문학비	범어로 하행선 문화의거리(청룡동 산 2-1)	'96. 2. 14	금정구청장
김종식 그림비	범어로 하행선 문화의거리(청룡동 458-2)	'94. 4. 9	금정구청장
황산 고두동 문학비	범어로 하행선 문화의거리(청룡동 산 2-1)	'97. 2. 22	금정구청장
김대륜 그림비	범어로 하행선 문화의거리(청룡동 435-21)	'98. 2. 28	금정구청장
3·1운동 유공비	범어로 하행선 문화의거리(청룡동 산 2-1)	'96. 11. 28	금정구청장
민영훈공 거사비	금정구 부곡2동 255-8	'93. 7.	금정구청장
6·25참전용사기념비	금정구 노포동 810-6	'03. 6. 18	금정구청장

# 〈김 정 한 생 가〉

명 칭	소 재 지	설립일자	관 리 자
요산 김정한 생가	남산동 661-4번지	2003. 5. 30	요산기념사업회

〈농 상 현 황〉	

명 칭	소 재 지	설립일자	관 리 자
박차정 의사 동상	금정구 구서1동 481번지	2001. 3. 1	금정구청장

#### 가. 특색있는 지역문화 창달

#### □ 정월대보름맞이 행사 개최

금정구는 2002년부터 매년 정월대보름날, 구민의 안녕과 화합을 위해 부산의 주봉인 금정산 고당봉 높이의 1/100에 해당하는 달집을 구청광장에 짓고 구민과 함께 잊혀져 가는 세시풍속을 재현하고 있다. 2006년 제6회를 맞은 달맞이 행사는 여는마당, 본마당, 닫는마당, 딸린마당 등 총 4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지역 풍물패의 길놀이와 한해의 액운을 막고 풍년을 기원하는 지신밟기를 여는 마당으로 하여 본마당에서는 구청 현관 앞에 마련된무대에서 달이 떠오르기를 기다리는 주민의 들뜬 마음을 위안하는 마당극,소리한마당, 풍물판굿이 마련되었다. 또한 주민 하나하나의 소중한 기원이담긴 소지를 달집과 함께 태우는 점화식은 행사의 절정을 이루었으며, 민속놀이 체험터,보름음식 먹기 코너 등의 딸린마당도 함께 진행되어 행사의재미를 더욱 만끽할 수 있게끔 하였다. 정월대보름맞이 행사는 계속해서 질높은 내용 구성과 내실있는 진행으로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함께하는 문화축제로 자리 잡았다.

### □ 제11회 금정예술제 개최

문화예술분야의 풍부한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한 지역 특성을 살려 구민의 문화 향수권 신장과 주민화합을 도모하고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개최된 제11회 금정예술제는'금빛샘 금어'을 주제로 개막식과 각종 공연·전시 및 경연·참여·부대행사 등의 7개분야 46개 단위행사로 꾸며졌다.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순수예술과 주민 직접 참여형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서로가 어울려즐기고 감상하는 일반축제와 구별되는 순수 예술 축제로의 새로운 발전 가능성을 확인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행사 장소를 다원화(금정구청, 금정문화회관 등)하여 주민 참여의 편리성을 도모하였다.

#### 〈 제11회 금정예술제 행사내용 〉

 구 분	행 사 명	비고
여는마당	길놀이(버슴새예술단), 모듬북공연, 금정구여성합창단, 개막식, 강미리 홀 무용단 「금어의 소리를 찾아서」, NGN 어린이 합창단, 불꽃놀이	
참여마당	뮤지컬「시스터액트」, 안우성 재즈 Quartet「보컬이 있는 재즈」, 글로빌예술단 「현악4중주, 오카리나」, 부산경호고등학교「경호시범」, 시조경창대회, 도용복의 영상으로 떠나는 세계뮤지컬기행, 재미난복수 밴드연합 단체·부산예술대학실용음악과·해운대고등학교 댄스동아리·이주연 밸리댄스·김경민 선소리타령보존회·금정청소년수련관동아리·금정문화회관 수강생공연	
공연마당	연극「삼류배우」, 국악「동초제 판소리와 극의 대향연」, 무용「Men's Story」, 오페라「굴뚝청소부 샘」	
전시마당	금정 미술전, 금정 사진전	
청 소 년 문화행사	흙과 친구하기, 영화야 놀자, 가족사진전시, 마임, 국악한마당 힙합, 한국무용, 퍼포먼스, 색소폰 연주	
딸림마당	범어사 개산문예대제전, 동래야류 전통 탈 전시, 웰빙 미니 실내 정원 전시, 먹거리 장터, 웰빙 건강체험마당, 제11회 금정백일장	
닫는마당	시와 소리와 영상과 몸짓의 향연	

#### 나. 지역문화예술 저변 확대

#### □ 금정문화원

우리지역 향토문화를 계발, 보급, 보존하고 각종 문화행사 개최로 지역 주민의 문화적 욕구 수렴, 발전을 위해 2000년 7월 개원한 금정문화원은 민요장구 교실 등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어버이날 기념 초청공연, 청소년을 위한 시와 춤의 만남, 국악의 밤, 금정예술제 참여(제11회 금정백일장) 등 지역문화행사의 개최하여 구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타지역의 자매문화원 간에 적극적 문화교류 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우리구의동별 향토사료를 조사 발굴하여 매년 향토문화지 및 사료집을 편찬하는 등지역전통문화 보존을 위한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 □ 금정구 문화예술인협의회 운영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진흥 발전의 구심체적인 역할을 담당하고자 금정구문화예술인협의회가 관내 거주 문화예술인으로 구성되어 문학·미술·음악·사진·무용·연극·국악·서예협회 8개 분과 394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구청과의 정기적인 모임을 통하여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창작활동 지원과 문화예술 행사 개최 시 주관 또는 자문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앞으로 각 분과협회별 기획행사 등 우리지역의 문화와 예술의 발전을 위한 더욱 다양한활동이 기대된다.

〈 금정구문화예술인협의회 구성 현황 〉

 계	문인협회	미술협회	음악협회	무용협회	연극협회	사진협회	서예협회	국악협회
394	76	87	35	27	18	35	47	69

#### □ 구민홀 상설전시장 운영

'94년 지역 예술인의 창작품 발표 공간을 제공하고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구민홀 2층에 설치된 상설전시장은 구민 소장 작품 전시, 지역 예술인의 개인전, 아마츄어 동호인전, 공모전등 지속적인 전시 유치로 예술인들의 새로운 창작을 위한 동기를 부여함과동시에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정서 함양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96년 9회, '97년 4회, 98년 3회, '99년 7회, '00년 6회, '01년 12회, '02년 10회, '03년 16회, '04년 15회, '05년 12회 '06년 10회의 전시회를 개최하여 주민에게 예술작품을 쉽게접할 수 있는 생활 속의 전시 공간으로 자리 잡았으며 예술인들의 자유로운착장 활동을 통하여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문화예술 작품전시회 개최는 구민의 예술적 감성개발에 크게 기여를 할 것이다.

#### 다. 문화예술 기반 구축

#### □ 금정문화회관 운영

금정구민의 문화공간 제공을 위해 금정구 구서동 481번지에 연면적 16,309.44㎡(4,993.61평)의 3개동이 지하 2층, 지상 4층의 규모로 2000년 준공 개관하여 생활문화공간, 공연공간, 전시공간, 야외공연장, 조각공원 등을 갖추고 부산의 북·동부권 문화중심 센터의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금정·기장·양산지역 150여만명의 시민이 즐겨 이용하는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요람이자 시·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 □ 문화의 거리 조성

지난 '94년부터 '98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범어사 일주도로인 범어로에 조 성한 문화의 거리는 '94~'97년까지 문학비 3개소, 그림비 2개소를 건립하 였다. 또 3·1운동 유공비를 범어사 학생·승려 만세운동 발원지 인근 범어로 변에 이전 준공하여 금정산과 범어사의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문화 산책로가 조성되었다. 문화의 거리는 이 지역을 찾는 부산 시민과 외래 관광객들에게 금정구의 이미지를 새롭게 부각시킴과 동시에 도심 속 휴식공간으로 시민들 의 정신적 안식처로 자리잡고 있다.

인근 남산동에는 2003년 6월 (사)요산기념사업회의 주관으로 요산 김정한 의 생가가 복원되어 관련자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요산기념관을 건 립하여 지역문화 자긍심을 고취하는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생가와 연계한 다양한 문화 컨텐츠를 개발하여 관광명소화 할 계획이다.

또한 남산동에 소재한 이슬람 부산성원 주변 노후화된 담벽에 그래픽 작 업과 불법 주·정차 방지를 위한 인도 조성 및 거리 조화를 위한 가로등 신설 등으로 이슬람문화의 거리를 조성하여 낯선 문화와의 상호 이해증진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 Ⅱ. 관광 문화재 행정

# 1. 문화재 현황

우리 구에는 국가지정문화재 8점, 시지정문화재 53점이 지정되어 있고, 범어사 성보박물관에 소장중인 불교 관련 그림과 오륜천주교 순교기념관에 보관중인 순교자 관련 유물들이 문화유산의 가치가 높아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많다.

## 〈총 현 황〉

2006. 12월 현재

	국가지정문화재 (8)					시지정문화재 (53)				
계	국보	보물	사적	천 연 기념물	무 형 문화재	유 형 문화재	무 형 문화재	기념물	민속 자료	문화재 자 료
61	_	4	1	1	2	33	1	2	1	16

## 〈국 가 지 정 문 화 재〉

종 별 (지정번호)	문화재명	내용 또는 특징	지 정 년월일	소재지
보 물 (제250호)	범어사 삼층석탑 (梵魚寺 三層石塔)	통일신라시대의 전형적 석탑으로 당시의 불탑 및 조각수법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임.	1963.1.21	청룡동 546 범어사경내
보 물 (제419 <del>-</del> 3호)	삼국유사 (三國遺事)	일연이 편찬한 삼국시대 역사서. 서울 곽영대 소장본이 보물 419호로 지정되어 있음. (1512년 중종 7)	2002.10.19	범어사 성보박물관
보 물 (제434호)	범어사 대웅전 (梵魚寺 大雄殿)	통일신라시대의 건물을 조선 중기에 중창한 목조 건물로 불당의 구조 및 양식이 잘 나타나 있음	1966.2.28	청룡동 546 범어사경내
보 물 (제1461호)	범어사 조계문	사찰의 일주문이 가지는 기능적인 건물로서 한국전 통 건축의 구조미를 잘 표현한 일주문의 걸작품임	2006.2.7	청룡동 546 범어사경내
사 적 (제215호)	금정산성 (金井山城)	신라시대 축조된 것으로 보이는 산성으로 임란이후 현규모로 조성된 국방유적임	1971.2.9	금성동일원
천 연 기념물 (제176호)	등나무 군생지 (藤나무 群生地)	수령 100년생의 등나무 500여그루가 군락을 이루고 있음(면적 55,934㎡)	1966.1.13	청룡동 산2-1 범어사경내
무 형 문화재 (제118호)	불화장(佛畵匠) <기능보유자> 임석정(林石鼎)	불화는 탱화, 경화, 벽화 등으로 분류, 불교교리 를 회화로 표현하는 전통사찰의 탱화가 주류임	2006.1.10	<주소지> 장전2동 505-52
무 형 문화재 (제80호)	자수장(刺繡匠) <기능보유자> 최유현(崔維玹)	여러 색깔의 실을 바늘에 꿰어 바탕천에 무늬를 수놓아 나타내는 조형활동의 전통공예기술임	1996.12.10	<주소지> 부곡3동64

# 〈시 지 정 문 화 재〉

종 별 (지정번호)	문화재명	내용 또는 특징	지 정 년월일	소 재 지
유 형 문화재 (제9호)	오층석탑 (五層石塔)	전형적인 오층석탑으로 1층 4면에 각 천왕의 특징이 뚜렷한 사천왕상이 조각되어 있음	1972.6.26	장전동산30 부산대학교 박물관앞
유 형 문화재 (제11호)	원효암 동편 삼층석탑 (元曉庵 東便 三層石塔)	신라말기 석탑으로 전체적으로 아담하여 동·서 석탑이 다른 대조적 양식을 나타내고 있음	1972.6.26	청룡동 525 원효암내
유 형 문화재 (제12호)	원효암 서편 심층석탑 (元曉庵 西便 三層石塔)	신라말기 석탑으로 전체적으로 아담하여 동·서 석탑이 다른 대조적 양식을 나타내고 있음	1972.6.26	청룡동 525 원효암내
유 형 문화재 (제15호)	범어사 당간지주 (梵魚寺 幢竿支柱)	법회나 의식이 있을 때 대형기치를 걸어두는 지 주로 장식이 전혀 없어 간결 소박한 멋을 나타 내고 있음		청룡동 546 범어사경내
유 형 문화재 (제16호)	범어사 석등 (梵魚寺 石燈)	통일신라시대의 전형적 석등으로 각 부분이 8각으로 되어 있음	1972.6.26	청룡동 546 범어사경내
유 형 문화재 (제25호)	이안눌 청룡암시 목판 (李安訥 靑龍巖詩 木板)	동래부사였던 이안눌이 범어사를 방문하고 지장전 옆 바위에 새긴 시를 목판으로 판각한 것 (1609년 광해군 원년)	1999.9.3	범어사 성보박물관
유 형 문화재 (제26호)	천수 책판 (千手 冊版)	7판으로 된 천수경판으로 김해 감로사에서 개간 한 것을 범어사로 옮겨와 간행한 것 (1676년 숙종 2)	1999.9.3	범어사 성보박물관
유 형 문화재 (제27호)	어산집 책판 (魚山集 冊版)	현재까지 알려진 것 중 범어사에서만 소장하고 있는 범응집의 일종으로 범패연구에 귀중한 자료임 (1700년 숙종 26)		범어사 성보박물관
유 형 문화재 (제28호)	범어사기, 범어사 창건사적, 범어사고적판 (梵魚寺紀, 梵魚寺 創建史蹟, 梵魚寺古蹟板)	범어사의 창건에 대한 기록을 새긴 3종의 목판 으로 古木板 (1700년 숙종 26)	1999.9.3	범어사 성보박물관
유 형 문화재 _ (제29호)	선문촬요 책판 (禪門撮要 冊版)	중국 역대 선사들의 저술과 우리나라 고승들의 저술을 수록한 책판 (1908년 융희 2)	1999.9.3	범어사 성보박물관
유 형 문화재 (제30호)	권왕문 책판 (勸往文 冊板)	몽매한 중생들을 깨우쳐 불심을 일으키기 위한 내용의 권왕가, 자책가, 서왕가를 언문으로 수록한 책판 (1908년 융희 2)		범어사 성보박물관
유 형 문화재 (제32호)	태전화상주심경 (太顚和尙柱心經)	당나라 고승인 태전화상이 반야심경에 주석을 한 책 (1411년 태종 11)	1999.9.3	범어사 성보박물관

	-	1	-	
종 별 (지정번호)	문화재명	내용 또는 특징	지 정 년월일	소 재 지
유 형 문화재 (제33호)	함허어록 (函虛語錄)	조선초 고승인 己和의 시문집으로 우리나라 불교연원을 살피는데 중요한 자료임 (1440년 세종 22)	1999.9.3	범어사 성보박물관
유 형 문화재 (제34호)	지공직지 (指空直旨)	인도 승려인 지공선사의 진리의 깨달음에 관해 이야기한 책 (1475년 성종 6)	1999.9.3	범어사 성보박물관
유 형 문화재 (제35호)	선종영가집 (禪宗永嘉集)	당나라 원각이 수행과정에 대해 적은 책으로 1381년 판본이 보물 641호로 지정됨 (1542년 중종 37)	1999.9.3	범어사 성보박물관
유 형 문화재 (제36호)	불설대보부모은중경 (機能大報父母恩重經	부모의 은혜에 보답할 것을 가르친 불교경전 으로 1378년 판본이 보물 705호로 지정됨 (1562년 명종 17)	1999.11.19	범어사 성보박물관
유 형 문화재 (제37호)	육조대시법보단경 (六朝大師法寶壇經	禪宗의 6대조 慧能의 일대기로 우리나라, 중국 일본 등에서 경전처럼 존중 받는 책 (1569년 선조 2)	, 1999.11.19	범어사 성보박물관
유 형 문화재 (제38호)	금강반야바라밀 경변상 (金剛般若波羅密 經變相)	금강반야바라밀경의 내용을 그림으로 묘사 한 책 (1570년 선조3)	1999.11.19	범어사 성보박물관
유 형 문화재 (제39호)	불조역대통재 (佛祖歷代通載)	석가 탄생에서 1334년까지 고승대덕의 전기를 편 년체로 수록한 책으로, 1472년 판본이 보물 737호로 지정되어 있음 (1430년 세종 12)	1999.11.19	범어사 성보박물관
유 형 문화재 (제40호)	몽산회상법어약록 (蒙山和尚法部略錄)	원나라 몽산화상 법어를 요약한 책으로, 1472년 판본이 보물768호로 지정되어 있음 (1579년 선조 12)	1999.11.19	범어사 성보박물관
유 형 문화재 (제41호)	법화경 (法華經)	화엄경과 함께 한국불교사상 확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천태종의 근본경전으로 문헌사적으로 귀중한 자료임 (1527~1711년 중종22~숙종37)	1999.11.19	범어사 성보박물관
유 형 문화재 (제51호)	범어사 사천왕도 (梵魚寺 四天王圖)	1869년 제작, 세로350cm 두루마리형으로 사천왕상 단독으로 그려진 불화는 현재 범어사 소장본이 제일 규모가 큼	2003.9.16	범어사 성보박물관
유 형 문화재 (제52호)	범어사 제석신중도 (梵魚寺 帝釋神衆圖)	기년명이 뚜렷하여 제작시기를 알 수 있고 19세 기 명문서식과 조선후기 영남지역 화승들의 계 보를 참조할 수 있음	2003.9.16	범어사 성보박물관
유 형 문화재 (제53호)	범어사 관음전 백의관음보살도 (梵魚寺 觀音殿 白衣觀音菩薩圖)	자애의 이미지를 시각화한 관음보살도로서 관음 전 전각의 관음불상의 후불화	2003.9.16	범어사 성보박물관

종 별 (지정번호)	문화재명	내용 또는 특징	지 정 년월일	소 재 지
유 형 문화재 (제54호)	범어사 의상대사영정 (梵魚寺 義湘大師影幀)	고려시대 양식 계승, 1767년 작품으로 조선후기 불교회화 연구에 중요한 자료임	2003.9.16	범어사 성보박물관
유 형 문화재 (제63호)	범어사 팔상· 독성·나한전 (梵魚寺捌相·獨聖 ·羅漢殿)	한 채에 세 법당을 연이어 붙인 길쭉한 건물로 서 1613년 묘전화상이 나한전을 창건, 1705년 명학스님이 팔상전을, 1905년 학암스님이 현재 의 건물로 새롭게 중건함		청룡동 546 범어사경내
유 형 문화재 (제67호)	범어사 대웅전 석가영산회상도 (梵魚寺 大雄殿 釋迦靈山會上圖)	1882년에 제작된 족자형의 대형 탱화이다 대형 화면에 본존불을 위시한 협시상들과 엄숙한 표 정의 신중들이 잘 조화를 이룸		청룡동 546 범어사경내
유 형 문화재 (제68호)	범어사 대웅전 삼장보살도 (梵魚寺 大雄殿 三藏菩薩圖)	1882년에 제작 상·하단으로 나누어 진 화면의 천장보살을 중심으로 좌우에 좌상의 지지보살과 지장보살을 배치함	2006.11.25	청룡동 546 범어사경내
유 형 문화재 (제69호)	범어사 대웅전 제석신중도 (梵魚寺 大雄殿 帝釋神衆圖)	대웅전 내부 우측 벽에 걸려 있는 이 작품은 조 선후기 신중도 연구에 자료적 가치가 있음	2006.11.25	청룡동 546 범어사경내
유 형 문화재 (제70호)	범어사 관음전 목조관음보살좌상 (梵魚寺 觀音殿 木造觀音菩薩坐像)	18세기 전반의 작품으로는 비교적 큰 규모이며, 작품이 뛰어나고 보존 상태도 양호할 뿐 아니라, 특히 대좌의 묵서명에 의해 제작시기, 봉안 처, 조각승 등이 확실히 밝혀져 문화재적 가치가 높음		청룡동 546 범어사경내
유 형 문화재 (제71호)	범어사 비로전 목조비로자나삼존 불좌상 (梵詩 毘墨段 术 <b>田</b> 盧娜 <u></u> 阿爾鄉像	관음전 목조불상과 함께 조각승 진열의 작품 연구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보존 상태가 양호	2006.11.25	청룡동 546 범어사경내
유 형 문화재 (제73호)	범어사석조연화 대좌하대석 (梵魚寺 石造蓮花臺座下臺石)	상·중·하 3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좌 중 폭이 147cm에 이르는 규모가 큰 8각의 하대석이다.		청룡동 546 범어사경내
유 형 문화재 (제72호)	범어사 미륵전 목조여래좌상 (梵魚寺 彌勒殿 木造如來坐像))	미륵전에 단독불로 봉안되어 있는 이 불상은 현재 범어사에 봉안된 목조 불상 중 규모가 가장큼		청룡동 546 범어사경내
무 형 문화재 (제12호)	주성장(鑄成匠) <기능보유자> 박한종(朴漢鍾)	조선전기 대형 동종의 사형주조방식과 정밀주조기 법을 전통적인 사형주조방식으로 재현하여 우수한 소리와 아름다운 문양의 한국종의 신비로움을 계 승	2004.10.4	<주소지> 부곡2동 235-5
기 념 물 (제15호)	금정산성부설비 (金井山城復設碑)	1808년 금정산성을 재축한 후 이에 대한 공사관계 사항 등을 기록한 비	1972.6.26	장전동 482

			-l -l	
종 별 (지정번호)	문화재명	내용 또는 특징	지 정 년월일	소 재 지
기 념 물 (제42호)	노포동 고분군 (老圃洞 古墳群)	3세기 중엽에서 4세기 초에 걸친 삼한시대 후기나 삼국시대 초기의 분묘 유적으로서 주거지 2동, 토 광묘 45기, 옹관묘 6기에서 토기, 철기, 석기 등의 유물 출토	1996.5.25	노포동 142-1,2
민속자료 (제1호) 	황실축원장엄수 (皇室祝願莊嚴繡)	한말 황실에서 범어사에 하사한 장엄수로서 당시 궁중 자수의 유형을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 임 (1899~1902)	1999.9.3	범어사 성보박물관
문화재 자 료 (제3호)	순치8년명 청동은입사향완 (順治8年銘 靑銅銀入絲香盤)	조성연대, 조성지역, 봉헌지 등이 명기되어 있어 조선시대 향완양식을 고찰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 임 (1651년 효종 2)	1999.9.3	범어사 성보박물관
문화재 자 료 (제4호)	도광명유제양이부 대발 (道光銘鍮製 兩耳附大鉢)	불교 공예품 중 의식법구로서뿐 아니라 사찰의 바루공양 의식 단면을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자료임 (1822~5년 순조 25~28)	1999.9.3	범어사 성보박물관
문화재 자 료 (제5호)	동치원년명 범어사 금고 (同治元年銘 梵魚寺 金鼓)	고려시대 조성된 금고 양식을 계승한 조선후기의 대형 금고로서 조성연대, 시주자 등을 명확히 알려 주는 자료임 (1862년 철종 13)	1999.9.3	범어사 성보박물관
문화재 자 료 (제6호)	선방 축성패 (禪房 祝聖牌)	사찰 선방에 모셔놓고 스님들이 예불을 드릴 때 기원하던 축성패로서 당시 궁중자수의 유형을 살 펴볼 수 있는 자료임.(한말)	1999.9.3	범어사 성보박물관
문화재 자 료 (제10호)	범어사 아미타극락회상도 (梵魚寺 阿彌陀極樂會上圖)	주색지에 백색선묘 기법을 지닌 비왕실 계층 민중 불화의 백색선묘 불화의 흐름을 이은 작품	2003.9.16	범어사 성보박물관
문화재 자 료 (제11호)	범어사 청풍당 아미타극락회상도 (梵魚寺 淸風堂 阿彌陀極樂會上圖)	범어사 아미타극락회상도와 표현기법이 동일, 제작 시기는 1860년대로 조선후기 불교미술연구에 귀중 한 자료	2003.9.16	범어사 성보박물관
문화재 자 료 (제12호)	범어사 석가26보살도 (梵魚寺 釋迦二十六菩薩圖)	1887년 제작, 19세기 각 도상들의 흐름을 연결하는 작품	2003.9.16	범어사 성보박물관
문화재 자 료 (제13호)	범어사 비로자나불회도 (梵魚寺 毘盧遮那佛會圖)	조선후기, 특히 19세기 각 도상들의 흐름을 연결하 는 작품	2003.9.16	범어사 성보박물관
문화재 자 료 (제14호)	범어사 칠성도 (梵魚寺 七星圖)	1891년 제작으로 범어사의 불교미술양식과 계보를 살필 수 있는 작품	2003.9.16	범어사 성보박물관

종 별 (지정번호)	문화재명	내용 또는 특징	지 정 년월일	소 재 지
문화재 자 료 (제21호)	범어사 목조시방삼보자존패 (梵魚寺 木造十方三寶慈尊牌	조선시대 원패의 일반적인 형태,조선후기 불교의식 구의 일면을 파악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	2003.9.16	범어사 성보박물관
문화재 자 료 (제 <i>2</i> 2호)	범어사 목조석가여래위패 (梵魚寺 木造釋迦如來位牌)	조선후기 불단 봉안 목패의 기본형태인 능화형 주 연과 연화대좌 및 운룡문이 잘 드러나 있는 작품	2003.9.16	범어사 성보박물관
문화재 자 료 (제23호)	범어사 목조 옴마니반메훔소통 (梵魚寺木造 옴마니반메훔疏筒)	조선후기 소통 중에서도 돋보이는 작품으로 조선 후기 불교의식과 불교공예를 대표하는 귀중한 자료	2003.9.16	범어사 성보박물관
문화재 자 료 (제24호)	범어사 목제어피인통 (梵魚寺 木製魚皮印筒)	정방형에 가까운 몸체와 우진각형 뚜껑의 기본골 격은 목재로 가구하고 그 표면을 어피로 감싼 후 각 모서리마다 황동 장석으로 마감한 조선후기의 인통으로 대찰(大刹)에서 제작하여 전해지는 불교 공예품으로 드문 유물	2003.9.16	범어사 성보박물관
문화재 자 료 (제25호)	범어사 연 (梵魚寺 輦)	가마채인 네 개의 손잡이, 작은집 모양의 몸체, 돔 형식의 옥개로 구성되어 조선후기에 제작되어 그 시대의 연의 형태를 고찰할 수 있음	2003.9.16	범어사 성보박물관
문화재 자 료 (제26호)	범어사 바라 (梵魚寺 바라(饒鉞))	놋쇠를 두들겨 제작한 방자유기로 제작연대가 오 래된 귀중한 자료	2003.9.16	범어사 성보박물관
문화재 자 료 (제36호)	금정진 관아터 (金井鎭 官衙址)	조선후기 왜적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해 축조된 국내 최장의 산성 인 금정산성을 관리하던 관방시설의 유지(遺址)로서 관아 규모, 운영, 직제, 성격과 관군과 승군들이 머물며 생활했던 생활상을 등을 조명해 볼수있는 중요한 유적이다.		금성동280일원 (22필지 8,910㎡)

# 2. 문화재 보호

우리 구의 대표적인 문화유적지로는 우리나라 성곽 중 최대 규모로 숭고한 호국정신이 깃든 국방유적지인 『금정산성』(길이 17,337m)과 우리나라 5대 사찰 중 하나로 국가지정 보물인 대웅전, 삼층석탑, 조계문, 삼국유사를 비롯하여 천연기념물인 등나무군생지, 50점의 유형문화재 외에도 많은 비지정문화재가소장되어 있는 『범어사』가 있으며, 이는 부산의 대표적 문화관광 유적지이기도 하다.

특히 금정산성 및 금정진의 복원사업은 국방유적지로서 호국 정신을 되살리는 뜻에서 장기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선·두구·노포·오륜동 지역은 『노포동고분군』을 비롯한 고분군 문화유적지로서 삼국시대와 가야시대의 유물이 발견출토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 구에는 금정산과 범어사 등의 넓은 지역에 문화재가 산재되어 있어 등산객과 관광객들에 의한 문화재 훼손 및 화재 발생이 우려되어 각별한 보호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 가. 관리 실태

문화재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복원의 일환으로 금정산성 종합정비계획 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정산성을 관리하던 관청(금정진 관아) 복원을 추진하고자 2003년부터 복원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지표조사, 현장답사를실시하여 복원기본계획 수립, 홍보와 더불어 市 문화재로 지정되었으며

범어사에 소재하고 있는 소중한 목조문화재의 보존 관리를 위하여 방연제 도 포사업과 노후한 전기시설 정비사업 및 상·하반기 연2회에 걸쳐 소방훈련을 실시 하고 있다.

금정산성과 범어사 등 문화재가 소재한 현지에 문화재관리 공익근무요원을 상시 배치하여 문화재 주변 환경정비, 청결활동 및 보호활동뿐만 아니라 문화재소개 및 안내 등 홍보활동도 담당하게 하여 문화재의 보호관리에 주력하고 있다.

#### 나. 보호 관리 대책

#### □ 화재예방

중요 목조 문화재(범어사 대웅전 주변)에 대한 정기적인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며 화재예방을 위해 범어사, 금정소방서, 금정구청 등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연 2회(4, 10월) 소방훈련을 실시하여 화재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불의의 사고로 인한 문화재 훼손 및 소실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 문화재 안전점검 및 사전예방

해빙기, 우수기, 동절기 등 정기적인 관리실태 안전점검 및 순찰 활동을 실시하여 등산객과 관광객들로 인한 문화재 훼손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노력하고 있다.

## 3. 문화재 보수

#### 가. 금정산성 정비사업

금정산성은 국내 최대의 국방유적지로서 1972년부터 연차적으로 보수·정비 계획을 수립 복원하고 있으며, 민족문화 유산의 온전한 복원과 쾌적한 유적지 환경을 조성하여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2006년까지 총사업비 5,725백만원을 투입하여 문루·망루 8개소 및 성곽 보수 4,254m를 보수 정비하였고, 장기적인 정비사업추진을 위하여 2006년에는 사업비 429백만원을 투입하여 성곽보수 및 서문지 주변 재해복구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금정산성 정비를 위하여 계속적인 노력중이다.

#### 나. 범어사 대웅전 주변 정화사업

범어사는 금정산, 금정산성과 연계하는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서 시민의 휴식공간이자, 보물인 범어사 대웅전을 비롯하여 많은 문화재가 집중 분포하는 지역으로 민족의 문화유산을 체험할 수 있는 산 교육장이다. 또한 부산의 역사와 같이 하는 천년고찰로서 사찰의 풍취와 면모를 일신코자 노후, 퇴락, 조잡한 요사채를 개·보수하는 등 정화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1969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요사채 증·개축사업은 안심료 등 총10건에 11,556 백만원이 투입되었으며, 2001년도 사업에 1,160백만원으로 범어사 대웅전 부분보수와 화장실 보수 및 오수차집관로 설치, 2002년도 사업비 400백만원으로 도로보수 및 오수차집관로를 설치하는 등 쾌적한 문화유적지 환경조성은 물론 화장실증·개축 및 오수처리시설 사업으로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을 지키는데 만전을기하고 있다.

#### 다. 범어사 성보박물관 운영

범어사는 신라시대에 창건된 고찰로서 근세에 이르기까지 왜적의 침입에 맞서이 땅을 수호해 온 호국 사찰로 수많은 고승과 율사를 배출한 전통사찰이다. 사찰 내에 많은 문화재를 수장하고 있으나 보존하는 시설이 없어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었다.

그리하여 사업비 2,209백만원으로 1999년 유물전시관 건립사업을 착공하여 2000년 완공하였다. 연면적 505.44㎡의 유물전시관에는 보물 제419-3호인 삼국유사를 비롯하여 천수책판 등 22종 283점의 동산문화재를 전시하여 시민은 물론 외국 관광객에게 개방하여 우리민족의 우수한 문화유산을 널리 홍보하고 소중한 문화유산을 후세까지 길이 보존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 4. 무형문화재 전승보급 추진

우리 민족 전통예술의 보전과 육성보급을 위하여 지정한 동래고무(시지정 무형 문화재 제10호 - 1998년 지정) 전수학교인 동래여자중학교와 동래지신밟기(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4호-2003년 지정) 전수학교인 금정전자공업고등학교에 대하 여 전승보조금을 지원하여 전통예술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고 각종 예술행사 개 최 시 공연을 통하여 시민의 문화향수를 고취시킴은 물론 우리민족의 우수한 전통예술을 대외에 알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성장(시지정 무형문화재 제12호 - 2004년 지정) 기능보유자 박한종 선생 님은 성덕대왕신종을 포함한 조선전기의 대형 동종을 주성하는 사형주조공법 과 상원사종의 정밀주조기법을 전통적인 사형주조방식으로 재현하는데 성공함으 로서 우수한 소리와 아름다운 문양으로 극찬 받는 한국종의 신비로움을 제대 로 계승하고 이와 함께 주성장의 전승과 저변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 5. 범어사 등나무 군생지 보존 관리

천연기념물 제176호(1966.1.13. 지정)인 범어사 등나무 군생지는 6,500여 그루의 등나무가 어우러져 자라는 희귀한 자생지로 예로부터 범어사 계곡 일대에 등나무 꽃이 필 때면 그 경치가 아름다워 '등운곡(藤雲谷)'이라고도 불리어 왔다. 등나무는 콩과에 속하는 낙엽 덩굴식물로 꽃은 5월에 피고 열매는 9~10월에 맺는데,이곳은 수령이 약 100년 된 큰 등나무를 비롯하여 280여 종의 거목들과 희귀식물들이 자라고 있는 자연 그대로의 원시림과도 같은 지역이다.

그러나 등나무가 타고 올라가는 귀의주가 고사하면서 등나무도 따라서 고사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2003년 사업비 242백만원을 확보하여 생육실 태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토대로 2004년 사업비 100백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관찰로 825m 설치, 등나무 외과수술, 덩굴정리 및 당김줄 설치, 의목 설치 등 입지성 회복사업을 추진 완료하여 등나무 군생지는 보기 드문 자연원시림으로서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편안한 휴식처와 산책로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06년 사업비를 100백만원으로 등나무보호사업, 관찰로 정비사업을 실시하였다.

## 6. 관광금정 구축

2006년에는 금정을 찾아오는 외래 관광객에게 관광금정의 길잡이의 역할을 제공하기 위해 금정관광안내도『금정여행길잡이』4.000부를 제작하여 관광 안 내소, 공항, 고속도로 휴게소, 호텔 등에 배부하였다. 금정여행에는 범어사 소 개와 금정산 등산 안내도, 금정산 관광정보 등 기타 유용한 관광정보 등을 수 록하여 관광편의를 도모하였고 휴대가 간편하도록 제작하여 활용성을 높였다.

또한 하루 평균 수천명이 이용하는 금정산에 등산안내판을 설치하여 등산객의 편의를 도왔으며 두구동 연꽃소류지에 편의시설인 전망데크, 등의자 및 임시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여 관광객 수용태세를 확립하였다.

그리고 2005년부터 금정의 문화유적지, 관광명소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에 게 역사·문화에 대한 상세하고 정확한 설명을 통해 우리 고장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기억에 남는 체험관광을 도와주기 위해 관광안내도우미 제도를 운영하였다. 범어사, 금정산북문 등 외래방문객의 방문이 잦은 주요 관광지에 배치하여 정확한 정보 제공과 다양한 서비스로 다시 찾고 싶은 금정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외래객의 재방문을 유도하는데 기여하였다.

2007년에는 금정산성 편의시설 정비와 범어사·금정산성일대에 역사·문화 탐방프로그램 운영하여 관관금정 발전에 기여하고 또한, 아름다운 우리고장 금 정에 산재해 있는 풍부한 문화·관광자원을 특색에 맞는 자원을 발굴·관리하 여 관광금정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관광자원의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통해 관광금정을 구축할 계획이다.

# Ⅲ. 광고물 관리

## 1. 옥외광고물 관리

옥외광고물이라 함은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공중에게 표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간판,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옥외광고물은 도시미관을 창출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나 불법광고물이 난립하고 있는 문제로 우리구는 시범가로사업, 광고물 전수조사 등 다양한 시책추진을 통하여 광고물 정비 붐을 확산시키고자 한다. 더불어 불법・유해 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 단속하여 깨끗한 도시미관 확보와 아름다운 광고문화정착을 위한 대시민 홍보 및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 2. 현 황

## 가. 옥외광고물 설치 현황

(단위 : 건)

구분			적 밥	광 고	1 물			불 법
총계	소 계	가로 간판	돌출 간판	옥상 간판	지주 간판	공공시설 이용간판		광고물
24,091	10,040	5,043	2,030	38	211	548	2,170	14,051

## 나. 광고물 관련 공공시설물 현황

(단위 : 건)

계	현수막	지정게시판	주민자율게시판	불법벽보
구분	지정게시대	(벽보게시판)		방 지 판
794	19	111	71	593

## 3. 옥외광고물 관련 업무 실적

가. 광고물 허가(신고)

(단위: 건)

합계	가로 간판	돌출 간판	옥상 간판	지주 간판	공공시설물 이용광고물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현수막 벽보	기타
3,914	373	962	11	84	535	152	1,748	49

## 나. 불법광고물 정비실적

(단위 : 건)

총합	그저과그무	유동광고물						
	고정광고물	합계	현수막	벽보	전단	입간판	기타	
491,872	846	491,026	3,357	118,085	306,270	1,669	61,645	

# 다. 도로점용료등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단위 : 건/천원)

구분	합계		도로공간사용료		도로사용료변상금		과태료 등 기타	
1 正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부과	6,002	521,476	2,234	166,707	3,677	326,289	91	28,480
 수납	4,483	369,243	2,024	145,820	2,386	202,658	73	20,765
징수율	7	70%		37%		62%		72%

### 라. 주민 홍보 및 계도 활동

## □ 캠페인 등 홍보활동 실적

횟 수	인 원	참 여 대 상	비고
10회	14,500명	<ul> <li>18개동 새마을지도자 등 환경정비 관련 단체</li> <li>18개동 직원 및 구 행정지원담당과 직원</li> <li>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li> <li>자활사업 참여자</li> </ul>	시민보람의 날과 병행 추진

## □ 홍보·계도 매체 활용실적

 계	신 문	방 송	반회보	구보	비고
 877회	_	278회	18개동 54회	5회	18개동 단체회의 홍보 540회

# □ 책자·리후렛 제작 및 배부 등 실적

	책 자	리 후 렛		
수 량	배부(비치)내역	수 량	배부(비치)내역	
150권	·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옥외광고업자 교육시 배부	15,000매	<ul> <li>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안내</li> <li>구 및 18개동 민원실 비치</li> <li>광고물 전수조사시 광고주에게 직접 배부</li> <li>신규 업소 통보시 안내문 통지</li> </ul>	

# 4. 2007년 추진계획

가.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ul> <li>□ 조사기간: 2007. 7. 2. ~ 9. 21.(58일)</li> <li>□ 조사대상: 고정식 광고물 약 25,000건</li> <li>□ 조사방법: 현지방문 전수조사</li> <li>○ 광고물 종류, 표시위치, 광고주, 규격, 업소명, 조명 등 조사</li> <li>□ 조사반 편성: 공공근로 인력, 공익요원 등 활용하여 5개반 편성</li> <li>□ 향후 조치</li> <li>○ 불법광고물에 대한 종합정비계획 수립</li> <li>○ 광고물 허가(신고)안내 및 양성화 안내</li> <li>○ 시범가로 위주 또는 도시미관 저해 광고물 우선 정비 등</li> </ul>
나. 불법 유동광고물 집중정비 계획
<ul> <li>□ 시범가로 정비구역내(부곡대우APT~두실지하철역 ☞ 약3.42㎞) 집중정비</li> <li>□ 현수막・벽보・전단 정비</li> <li>○ 상업용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한 공공현수막 우선철거</li> <li>○ 불법 현수막・벽보・전단 강제철거 및 행정조치 강화</li> <li>□ 입간판 및 에어라이트</li> <li>○ 대상구역내 불법입간판 전수조사 및 자전철거 계고</li> <li>○ 가로정비 주차단속과 병행하여 합동 및 야간단속 실시</li> <li>○ 전주 등 가로시설물 불법벽보 부착방지판 확대 설치</li> <li>□ 365 기동순찰 정비팀 운영</li> <li>□ 야간 및 휴무일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추진: 야간(매월 5회), 휴무일(매주 1회)</li> <li>□ 아름다운 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대시민 홍보 강화</li> </ul>
다. 옥외광고업소 지도ㆍ점검 계획
<ul> <li>□ 기 간: 2007. 5. 28. ~ 6. 22.</li> <li>□ 점검대상: 관내 옥외광고업소(89개소)</li> <li>□ 점검반원: 광고물 담당자 5명</li> </ul>

#### 제 2 부 부분별 행정

- □ 점검방법: 해당업소 직접 방문하여 점검표에 의한 조사
- □ 점검사항
  - 등록(신고)한 사항과 동일하게 업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여부
  - O 불법 광고물 설치 여부
  - □ 위반업체에 대한 조치
    - O 미등록 업소는 고발조치, 신고사항 미이행 업체는 과태료 부과
    - O 자격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업체 등록취소 등 확행
    - 불법광고물 설치한 경우 허가요건 구비 광고물은 허가(신고) 신청, 요건 불비(不備) 광고물은 자진철거 요청,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 5. 업무 추진상 문제점

□ 불법유동광고물 과태료 부과시 광고주 인적사항 파악 어려움

#### O 현실태 및 문제점

현재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위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파악이 필요하나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 광 고물에 표시되어 있는 해당업체에 전화를 하여 본인 진술을 통하여 인적 사항을 파악하는 방법이 유일하다. 최근 불법유동광고물인 벽보, 전단, 현 수막 등에는 해당 업체 전화번호 미기재, 080 음성 서비스 번호 기재 등을 이용하여 인적사항 노출을 피하고 있으며, 또 위반자와 통화시 본인이 인적 사항 진술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 부과가 어려운 상황임

#### O 개선방안

수사권이 있는 관할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할 수 있는 법개정과 통신사에 전화번호 가입자 인적사항 파악이 가능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